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

조성윤*

<차례>

1. 머리말
2.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 배경
3. 태평양 전쟁기의 남양군도 연구
4. 일본의 남양군도 연구
5. 맺는말

국문요약

이 글은 태평양 섬 지역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의 미크로네시아, 말하자면 남양군도의 역사와 그 연구동향을 검토한 것이다. 제국 일본은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미크로네시아를 1914년 점령하였고, 1921년부터 1933년까지의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 미군에게 빼앗기는 1945년까지 지배하였다. 남양군도는 제국 일본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침략을 확대해 가기 위한 거점이었다. 이를 위해 1921년 남양청이 설치된 이후에도, 실제로는 해군이 남양군도를 통치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내내 해군이 주요 섬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진행했으며, 태평양 전쟁기간 동안에는 이 섬들을 무대로 미군과 전투를 전개했다.

한편 남양군도에서는 남양흥발(南洋興發) 주식회사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전분, 인광(燐鑛), 수산물 등을 생산했으며, 남양무역(南洋貿易)은 해운업과 야자 재배를 수행했다. 일본은 남양군도 현지 주민의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오키나와 주민들과 조선인들을 이주시켰다. 때문에 전쟁이 터지자, 일

* 제주대 교수·사회학

본군과 미군의 전투에 말려들어가 수많은 현지주민과 오키나와인, 그리고 조선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기존의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지배정책과 전쟁 과정에 집중되었을 뿐, 희생자로서의 현지주민과 오키나와인,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태평양 지역 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 작업을 진행할 때,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시각만이 아니라 그곳에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와 위안부의 역사를 포괄하면서, 현지 주민 중심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 태평양, 남양군도, 미크로네시아, 일본

1. 머리말

흔히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권역 국가라고 한다. 한국은 아시아의 일부, 즉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이지만, 동시에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그래서 태평양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는 태평양 지역의 구성원임을 잊고 지낸다. ‘아시아·태평양, 줄여서 아태지역이라는 명칭을 걸고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개 미국이라는 강대국만을 바라보며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오고가면서도, 비행기 밑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섬들에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져 왔던 역사, 인간의 삶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아·태’에서 정작 태평양은 빠져 있고, 아시아와 미국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이들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우리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가? 또 몰라도 되는 지역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우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남양

군도(南洋群島)가 그곳이라는 점이다. 남양군도는 제국 일본을 통해서 한국인의 역사와 연결된 곳이다. 남양군도는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넓게 퍼져 있는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의 섬들 가운데 일본이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통치를 위탁받았던, 현재의 북마리아나 제도·파라오·마셜 제도·미크로네시아 연방을 가리킨다. 이곳으로 수많은 선조들이 노동자로, 군인으로, 위안부로 끌려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갔다. 그런 점에서 태평양의 섬 지역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한국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며, 그 당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 주민과 결혼해서 뿌리를 내린 주민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태평양 넓은 바다에서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참치를 잡아 올리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의 무역선과 유조선이 온갖 물자와 기름을 실어 나르면서 지나고 있다. 그리고 멀리 하와이부터 뉴질랜드, 괌, 사이판 등 많은 섬들 가운데 한국 교민이 없는 섬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섬에서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은 한국인의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태평양의 섬 지역은 이미 한국 사회, 한국인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지역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류 관계는 대부분 강대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 뿐, 한국과 태평양 섬 지역이 직접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한 지구화는 바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구화의 진전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한국의 학계에서는 태평

양 섬 지역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니 연구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개인적으로 몇몇 연구자들이 조금씩 연구 작업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학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태평양을 하나의 분명한 지역, 즉 지구상에 가장 드넓은 해역(海域)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단위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태평양 지역은 크게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Melanesia), 폴리네시아(Polynesia)의 3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은 적도 이북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권역이다. 이 권역은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 캐롤라인 제도(Caroline Islands), 마셜 제도(Mashall Islands), 키리바티 제도(Kiribati Islands), 투발루 제도(Tuvalu Islands)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에서는 현지 토착 주민이 주인이 아니다. 특히 마이크로네시아 권역에서는 스페인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품은 제국들에 의해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제국들은 서로 흥정을 해서 주인 자리를 돈으로 사고팔기도 했지만, 때로는 전쟁도 불사했다. 지배 세력이 바뀔 때 마다 그들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가 바뀌었고, 섬 이름, 마을 이름, 거리 이름 등, 주요 지명들이 모두 바뀌었다. 주인이 된 제국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현지 토착 주민들에게 강요했으며,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지역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알아야 한다(주강현, 2008: 236~238).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태평양 섬 지역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의 마이크로네시아, 말하자면 남양군도라 불리던 시

질의 역사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 작업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늘날 미크로네시아는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며, 그 위에 호주,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이 이 지역 자원을 노리고 손길을 뻗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 남양군도를 지배하던 당시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조성윤, 2010: 55).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남양군도 시절의 제국 일본의 지배 방식과 구조,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것은 현재의 미크로네시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2.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 배경

1) 군사적 배경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이 근대 제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를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8세기 초부터 스페인, 스페인에 이어 독일이 지배했던 1914년까지, 제2기는 일본이 이 섬들을 점령한 1914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쫓겨나고, 미국이 이 지역 통치를 이어받는 1945년까지, 제3기는 미국의 지배권 영향력 하에 놓였던 지난 60여 년 동안이다(Mark R. Peattie, 1988: 3).

제국 일본이 미크로네시아를 지배한 시기는 제2기에 해당된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일본 제국의 해군은 1914년 4월에 독일 제국이 지배하던 태평양 섬 지역 중에서 오늘날 미크로네시아라고 부르

는 지역을 점령했다. 이 점령은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가능했다. 일본은 이 지역을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지배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기보다는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받아 위임통치를 실시했던 지역이다. 일본은 이 지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싶었지만, 미국의 방해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지역을 국제연맹의 결의를 따라 위임통치 지역으로 지정 받았다(今泉裕美子, 1993: 57). 그 뒤 일본은 1914년 점령 직후부터 군대가 직접 지배하던 통치 방식을 바꾸어 민간 기구인 남양청(南洋廳)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그럴 뿐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해군의 통치하에 있었다. 해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을 군사 요새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각종 포대를 구축하고, 군항을 넓히고, 비행장을 건설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신탁통치는 이것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今泉裕美子, 1993: 62).

한편 해군 당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문화를 심어서 일본인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고유문화와 언어가 존재했으며, 그 위에 제국 독일이 이미 이 지역에 자신들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선교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워서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상당수의 주민들이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자가 되어 있었고, 이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현지 주민에 대한 일본인화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신부 목사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학교 문을 폐쇄해야 했다. 그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주민들을 모아서 일본어를 학습시키고, 일본문화를 전파해야

할 것이었다.

점령 초기인 1914년과 1915년에는 일본 해군으로서는 이런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도 갑자기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때문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독일인 신부들의 잔류를 허락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다가 1919년경부터 독일인 선교사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들을 퇴거시키려 하자, 반발이 심했다. 가장 문제가 된 주민들 중에서 이미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였다. 이들은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의례에 신부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신부들이 학교 선생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을 추방하려 하자, 국제 여론이 나빠졌다. 이 여론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군과 남양청 관리들은 현지주민들을 「日本化」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퍼진 지역에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기로 했다. 구교는 독일 선교사를 퇴거시키는 대신, 교황청과의 협의를 통해 스페인 선교사를 받아들였으며, 개신교회에는 일본조합교회에 의뢰해서 일본인 목사를 선교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편 기독교가 퍼지지 않은 지역에는 일본식 불교를 도입해서 포교를 벌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出岡學, 2003: 55~56).

일본이 이 지역을 탐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보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것이였다. 일본은 이 지역 섬들을 발판삼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뉴기니 등 더 넓은 지역을 향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인들의 남쪽으로의 식민지 확보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상을 남진론(南進論)이라고 하는데, 남양군도는 바로 이 남진론의 거점이였다(安部惇, 1985: 13). 그들은 미크로네시아뿐만 아니라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을 제국의 영역으로 삼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남양군도는 일본 제국의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요, 전진 기지였다(도미

야마 이치로, 2002: 57). 일본 제국주의에게 남양군도가 갖는 의미는 식민지 경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보다 오히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침략을 확대해 가기 위한 거점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했다. 이는 남양군도를 1930년대 중반 이후 ‘내남양’(內南洋)이라고 불렀다는 데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외남양’(外南洋)이라고 불렀다. 즉 남양군도는 안에서 바깥으로 ‘대동아공영권’을 향해 남진(南進)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군사 거점으로서의 남양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은 1914년 점령 이래 줄곧 해군이 직접 통치했다. 물론 1921년 남양청이 설치된 이후 민정으로 이양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해군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1920년대 내내 해군이 주요 섬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진행했다. 1930년대 들어서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남양군도를 군사기지로 재편하기 시작했다(ピーティ어, マーク・R, 1992: 189~190).

2) 경제적 배경

한편 남양군도는 군사적 침략 진출의 거점인 동시에 자본 진출의 거점이기도 했다.

일본의 민간회사들이 19세기말부터 꾸준하게 스페인과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890년에 설립한 남양군도 회사를 인수한 이치야 상사와 1891년 설립된 카이추 회사, 에노모토의 열성 추종자였던 요코 토사쿠가 설립한 코신사 등이 모두 1891년에 포나페와 트럭에서 교역을 시작하였다. 1890년대에 남양교역에 나선 회사들은 도산으로 이어졌으나, 그 성과는 1900년대에 거두기

시작했다. 트럭에서 교역을 하던 히키무역회사와 무라야 회사 등은 1906년에 독일의 마이크로네시아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일본 선박에 의지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두 회사는 1908년에 남양무역회사로 합병하여 마이크로네시아 도처에 상업망을 확장해 나가고, 어업통상과 우편업, 화물수송, 승객 수송 등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정도였다(정혜경, 2006: 202~203).

이 지역에서는 동양척식(東洋拓植) 주식회사가 주도한 남양흥발(南洋興發)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제당업을 중심으로 주정(酒精), 전분, 인광(燐鑛), 수산물 등을 생산했으며, 한편 남양무역(南洋貿易)은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운업과 야자 재배를 수행했다. 더욱이 독일 남양인광주식회사를 매수한 인광 채굴이 남양청의 관영사업으로 전개되었다(도미야마 이치로, 2009: 216).

일본은 남양군도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일본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지 주민의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이 지역으로 옮겨가 살게 하도록 노력했다. 남양군도에서 전개된 자본이 필요로 한 노동력은 남양군도 주민들도 부분적으로 노동력으로 흡수되었지만, 대부분 소철지옥으로 형성된 오키나와의 과잉인구로 충당되었다(도미야마 이치로, 2009: 217). 특히 1930년대를 거치면서 그 수는 10,176명에서 45,70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도미야마 이치로, 2002: 218). 물론 모든 노동력을 오키나와 주민으로 채운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들어 두 차례의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들이 모두 오키나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후쿠시마(福島), 야마가타(山形) 등 일본 다른 지방 사람들로 채우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조선에서 모집해서 충당하려고 하였다.

특히 사이판 바로 밑에 있는 티니안(Tinian)섬에는 남양흥발 주식회

사가 사탕수수를 재배했다. 초기에 이 섬에는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을 주로 이민시켰고, 일부 조선인들도 들어왔다. 특히 오키나와 주민들은 원래 오키나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합했다. 이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어 티니안의 설탕 생산량은 1930년대 초에는 대만에 이어 동양 제2위를 차지할 정도까지 발달하였다. 그러자 일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 우편국 등이 건설되었으며, 중심 거리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과 요정 등이 즐비했고, 일본 본토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도회지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일본인들은 이곳을 티니안마찌라고 불렀다. 한편 사탕의 출하를 위한 항만시설이 티니안마찌의 해안에 건설되었다. 섬 주위는 모두가 절벽으로 덮여 있었으므로, 물자는 모두 이 티니안항으로부터 나갔다. 섬 안에는 티니안마찌부터 북쪽 끝의 우시자키부근까지 이르는 철도가 부설되어, 지선은 온 섬에 깔려 있었다. 도로망도 발달해서 온 섬을 덮고 개발상황은 사이판보다도 훨씬 진행되었다(溝口敏行, 1980: 128~134).

가장 사탕산업이 번성할 때에는 민간인만 해도 약 2만 명 가까웠지만, 이는 일본인으로서의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4년이 되자 민간인의 본토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미군 잠수함에 의한 수송선 격침이 이어져, 귀환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미군 상륙 당시에는 티니안 섬의 민간인은 일본인이 약 1만3천명, 조선인 약 2,700명이 남아 있었다(西村誠, 2007: 104~105).

사실 남양군도 지역에 일하러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일본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남양홍발이 이주자를 모집하러 다녀야 했다. 모집은 전국적으로 실시했지만, 지원자의 대부분은 오키나와에서 나왔다. 남양홍발 주식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것을 출세의 기회로 여겼다(도미야마 이치로, 2002: 218).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주국으로 보냈던 만몽개척단(滿蒙開拓團)에 벽촌인 나가노현(長野縣) 주민들이 가장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양군도 지역으로는 오키나와 주민을 대량 이주시킨 것이다. 이런 정책 역시 새로운 식민지를 확실하게 일본의 땅이라고 못 박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의 사이판, 티니안 이주는 ‘이민’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모두 짐을 싸서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 후 60여 년 동안 이 지역은 미국이 지배해 왔으며, 일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남양군도’가 아닌 미크로네시아일 뿐인 것이다. 이 남양군도에서의 오키나와 이주민에 관해서는 현재 류큐대학 이민연구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石川友紀, 2004).

3. 태평양 전쟁기의 남양군도 연구

그동안 한국사 연구자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를 연구하면서 일본 제국의 실체를 좀 더 넓게 보는 데 게을렀다. 제국 일본의 조선 지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 경제적 수탈, 이에 맞선 조선인의 저항운동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따라서 남양군도는 우리의 연구 시야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남양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평에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남양군도는 조선, 대만, 만주와 더불어 제국 일본의 중요한 지배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제국 일본의 식민지 경영의 전체 틀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양군도가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 틀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남양군도와 조선의 관계, 조선인의 남양군도에 관한 인식을 다룰 것이다.

계속되는 일본 제국의 남진정책을 가로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 역시 태평양을 무대로 영역을 넓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 충돌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했다. 애초에 일본제국은 미국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었다. 태평양 일대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었고,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미 제국주의와 공존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을 미 제국은 허용하지 않았고, 일본 제국주의는 결국 전쟁으로 나갔다(家永三郎, 1968: 서론).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처음에는 일본군이 우세했지만 일 년도 못 가서 전세가 뒤집혔다. 미드웨이해전에서 대패한 이후 일본군은 단 한 번도 미군에게 크게 이겨보지도 못한 채 내내 후퇴를 거듭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는 대부분 남양군도를 무대로 진행되었다. 섬들을 지키던 일본군 수비대들은 상륙하는 미군과 맞서 싸우다가 죽어갔다. 일본군 총사령부인大本영은 가능한 한 항복하지 않고 오래 시간을 끌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옥쇄(玉碎)라고 칭송하곤 했다. 그렇게 죽어간 일본군 병사들이 이백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에 죽어간 사람들이 병사들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과달카날은 물론, 트릭섬, 마킨, 타라와섬 등 대부분의 섬에 일본군 병력이 배치되어 싸웠는데,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로만 태평양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실제로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고, 위안부들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사들 보다 민간인이, 그리고 병사들 보다 참호를 파

고 비행장을 닦기 위해 동원되었던 민간인들, 특히 군부(軍夫)라는 이름의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이 더 많았다. 바로 이 남양군도의 여러 섬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되거나, 전쟁의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마킨섬과 타라와섬에서의 전투로 수비대 병사들보다 훨씬 많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간 이야기는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¹⁾ 뿐만 아니라 사이판섬에서는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가 된 자살 절벽(Suicide Cliff)과 만세 절벽(Banzai Cliff)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 민간인들이 자살을 강요받았다. 그런가 하면 미군 상륙이 임박했을 때,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 위안부와 군부들도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²⁾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한 번도 본격적인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남양군도에서의 조선인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방치되어 왔다. 몇 년 전부터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하여 이 지역에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힘입어 그동안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일제 말기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남양군도 관련 논문도 나오

1) 남양군도 중에서도 마킨 섬과 타라와 섬은 조선인 군부로 끌려가서 비행장을 닦고, 각종 군사시설을 만드는 데 동원되고 있었다. 마킨섬에서는 일본군이 500명 가량인데, 조선출신군속이 200명이 넘었다.

○ 日本軍 (朝鮮出身軍屬を除く) 戦死者 492名 / 生存者 3名

○ 朝鮮出身軍屬 戦死者 99名 / 生存者 101名

타라와 섬의 일본군 戦死者 4713名 중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軍人 17名 内地出身軍屬 14名, 朝鮮出身軍屬 129名이었다. 조선출신 군속 사망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조사된 바 없다. 여기서 조선출신 군속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일본군과 미군이 전투를 벌이는 한복판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달리 숨을 곳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폭탄과 총탄을 맞아 죽어 버렸다.

Wikipedia 일본어판 マキンの戦い, ギルバート・マーシャル諸島の戦い.

2) 『서울신문』 2007년 8월 24일 기사.

기 시작했다. 이 방면 연구의 중심에 정혜경이 있다. 정혜경 연구의 특징은 당시 일본 제국이 생산한 문서를 발굴하고, 그 당시 징용으로 끌려갔던 이들의 증언을 모아서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당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특히 구술 자료를 토대로 1941년 전쟁 발발부터 1945년 이후 귀국할 때까지 남양군도에 머물던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다(鄭惠瓊, 2002 ; 鄭惠瓊, 2004 ; 정혜경, 2005 ; 정혜경, 2006 ; 김명환, 2008 ; 김명환, 2009). 이어서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귀환 문제 등에 관해서도 몇 편의 연구가 나왔다(張錫興, 2003; 박종기, 2004 ; 김도형, 2006)

이처럼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지만, 아직 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위안부에 관한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는 일본 제국이 남겨 놓은 서류를 발굴하고, 귀환한 한국인 증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를 자료로 사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³⁾ 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말하자면 현지 주민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었다.

구 남양군도, 현재 미크로네시아의 섬을 연구할 때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말하자면 차모로인, 카나카인들의 시각을 중요시해야 한다. 태평양전쟁을 일본 제국과 미 제국의 관점에서, 전쟁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과 일본군과 미군이 남겨 놓은 전적지를 조사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눈에 비친 일본군과 미군을 보고, 그들 주민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 작업이

3) 그동안 자주 인용되던 대표적인 조사작업은 권희영 외, 1995, 『해의 희생자 유해현황 조사사업 보고서, 1995년도: 일제시기 해의 한인 희생자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였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 일본은 태평양 섬들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유골을 수습하고 봉환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간행한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본군 유골 수습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지,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생하던 현지 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강제 연행된 한인들은 돌아오기 쉽지 않았다. 패전과 함께 일본군의 귀환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일부 한인은 종전 후 일본인들과의 충돌을 염려하여 집단 귀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한인은 폐허가 된 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일본 당국은 이들에게 패전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후에 해방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귀환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은 한인들은 자력으로 귀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 모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보안대를 조직, 임시규율을 제정하였다. 캐롤라인 제도의 코스라에(Kosrae, 쿠사이)섬에 해군 군속으로 강제 연행된 한인의 경우 ‘朝鮮革進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총 318명분의 주소와 창씨명(創氏名), 구명(舊名:본명을 가리킴)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고 잔류 한인들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패퇴가 거듭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한인사회를 정비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미군정이 한인의 귀환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송환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다. 일본군 사령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연합군의 방관 속에서 한인 강제연행자들은 또 한 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해야 했다(남경희, 2006: 42~44).

사이판 남쪽에 있는 섬 티니안에는 일제 말기 그 섬에 끌려갔던 조선

4) 예를 들면, 日本民主同志會編, 1973, 『孤島の英靈: 中部太平洋諸島 第1次特別慰靈・遺骨收拾調査派遣団 記録』, 恒友出版.

인들의 후예가 지금도 남아 살고 있다(조성윤, 2010, 53). 이들 한인계가 티니안 주민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 남자와 현지 여자가 결혼해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티니안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인 교민인가? 그들은 한인 2세, 3세라고 할 수 있는가? 사이판과 티니안의 교민회는 이들을 동포로 간주하는가? 그들에게 인종, 국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를 그들과 어떻게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4. 일본의 남양군도 연구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 유럽 미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식민지를 가졌던 유일한 국가였다. 구미제국이 식민지를 대부분 구미 이외의 다른 문명권에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아시아의 일본은 우선 자국에 인접한 아시아의 동일문명권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나서 더 바깥쪽으로 외연을 확대해간 대단히 특이한 팽창정책을 폈다. 이 사실 자체가 근대세계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만과 조선이라는 식민지가 '전통적인 중화권에 속하며, 일본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인 것과는 달리, 미크로네시아는 전혀 다른 문명권에 속하는 섬 지역이고, 식민지로서의 지위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령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大江志乃夫, 1992).

전혀 다른 문명권에 속하는 새로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행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가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인류학, 민족학, 고고학, 의학, 노동과학, 농학, 생물학 등의 제 학문이 열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남양군도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남양청이 설립한 열대산업연구소가 1922년에 팔라우에 먼저 세워졌고, 1926년에는 포나페(Ponape, 폰페이(Ponpei)라고도 함) 1926년, 1930년에는 사이판에 차례로 확대되었다. 또한 학술진흥회가 설립한 팔라우 열대생물연구소가 1934년에 문을 열었고, 1938년에 설립된 태평양협회(太平洋協會)도 남양군도에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다(도미야마 이치로, 2009: 216). 태평양협회는 1938년에 설립된 조사연구기관이다. 동아연구소, 남양협회, 민족연구소 등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 태평양 지역에 관한 서구 문헌의 번역과 논문집 간행을 주도했다. 강좌파(講座派) 맑스주의자에서 전향한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가 조사국 국장과 민족부 부장을 겸임했다.⁵⁾

한편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남방 경영과 관련하여 우익 단체들이 속속 구성되었고, 이들 단체의 강령에는 “남방 열도의 정치, 경제, 민족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이 중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익 단체인 남봉회(南鵬會)는 1941년 대일본인의 남방에로의 민족 이주를 위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경 긴자에 사무소와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고, 남방 경영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남봉회의 강령은 남방에로의 일본 민족의 대 이주를 위해 나방 민족과의 융화 제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남방 민족,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를 건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남방회(南方會)는 대일본적성회와 신일본동지회를 중심으로 남진을 주장하는 단체로 1941년 결성되었다. 그밖에도 대북제국대학(臺北帝國大

5) 도미야마 이치로, 2002, 『전장의 기억』, 도서출판 이산, 279쪽의 옮긴이 주 15).

學) 부설 남방토속학회와 같이 식민지학으로서 문화인류학을 통해 남방 원주민에 대한 연구 작업을 행한 단체들은 『南方民族』, 『南方土俗』같은 잡지를 발간하면서 남방 경영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민지학으로서 남방 담론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각지에 자원, 종족, 생태 연구를 위한 각종 연구소를 개설하였고, 사설 연구소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식민지학 연구기관은 식물원이나 박물관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⁶⁾

국내에 남아 있는 남양군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국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남양청을 비롯한 일본 각지 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행물 자료들과 연구 서적들로 매우 다양했다. 아마도 조선총독부 직속 도서관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보내왔던 자료와 연구물들이 지금은 귀중본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양은 방대하며, 대부분 귀중본 도서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에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검토한 글을 본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남양군도는 물론, 오늘날의 마이크로네시아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한국인들이 남양군도와의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미 1920년대부터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남양군도에 대한 관심은 컸으며, 때로는 그 열기가 지나쳐, 조선총독부가 이상 열기를 염려하고, 규제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지리

6) 권명아, 2005, 『태평양 전쟁기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상허학보』14집, 상허학회, 350쪽 주26).

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류의 역사가 깊은 ‘만주’와 달리 남방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교류의 맥락이 부재하였으며, 남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할만한 지식 집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39년을 전후해서 생산된 남방에 대한 담론은 남방 열도의 역사와 민족 구성, 자원에 대한 초보적 정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남방이라는 지역에 대한 조선인들이 가지는 실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권명아, 2005; 337).

권명아는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서 생산된 남방 종족지는 주로 역사, 자원, 풍습, 인종에 대한 정보 소개에 그치고 있었으며, 남방 지리에 대한 관심은 전선의 변화와 추이에 대한 관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정복을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으로 간주하는 것이기도 하였다”으며, “특히 서구인의 탐험으로 ‘발견’된 남방을 일본이 다시 ‘탐험’함으로써 남방은 ‘동양’(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의)으로 다시 발견되는데, 이런 시선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은 남방 지도를 펼쳐 놓고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을 수행하는 일본군 ‘탐험대’ 대열에 합류한다.”고 지적하였다(권명아, 2005 ; 353).

전쟁이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 6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양군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태평양 섬들에 대한 지배정책에 관해서는 이마이즈미(今泉裕美子)가 많은 연구업적을 생산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주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남양청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이 남겨 놓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매우 세밀한 데까지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배정책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정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지배정책을 공문서를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⁷⁾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마이즈미를 비롯한 일본학자들의 일본 공문서 발굴, 정리, 및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위에서 지배자의 입장이었던 일본 식민자의 관점을 벗어나서, 지배를 당하던 현지 주민인 차모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곳에 노동하러 갔던 오키나와인, 조선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각의 전환이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에 의해 노동자로, 병사로,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고통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했던 남양군도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은 제국으로서 확보했던 식민지들을 모두 잃어 버렸다. 남양군도 역시 그 일부분이었다. 일본 제국이 독일제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남양군도라고 이름을 붙여 통치했던 미크로네시아 지역은 일본의 손을 떠나 미국으로 넘어갔다. 아울러 일본 통치 30년 동안 이 지역을 확보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이주했던 일본인들도 모두 짐을 싸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은 잊혀졌다. 아니 잊기를 강요받았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그동안 이 지역을 남양군도가 아닌 미크로네시아 지역으로 놓고 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대부분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현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종교, 문화, 풍습의 연구가 그것이다(清水昭俊, 1993; 坂野徹, 2005).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와 전시의 한 모습을 우리는 오키나와 해양문화박물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해양문화박물관은 일본에서 태평양 지역 섬들의 문화전반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박물관

7) 이마이즈미의 연구 중에서 기존의 제도사 연구가 아닌 전쟁에 밀려 들어간 오키나와인, 조선인, 그리고 현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석은 아니다(今泉裕美子, 1992: 43~51).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가 나와 있다.

Expo'75(오키나와 국제 해양 엑스포) 동안 일본 정부에서 전시한 물품에 이어 해양에 대한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라는 메인 테마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전시물은 현지 주민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지원, 이해, 협력 하에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된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것입니다. 주로 국제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닌 수많은 카누에 대한 소개로 구성된 이 투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곳에서는 인류와 바다와의 숨 막히는 대서사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해양문화박물관 가이드 투어 소개)⁸⁾

해양 박물관은 “쿠로시오 해류 지역의 삶”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바다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바다와의 만남, 바닷속 이야기, 태평양 연안의 사람들, 바다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 섬 생활과,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동남아시아 및 일본 지역에 대한 일본인과 바다라는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박물관은 오키나와 지역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네시아 문화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문화의 성립과 그 역사, 바다를 통해서 옮겨진 문화의 전래와 발전, 그것들 민족상호의 교류의 모습 등을 알 수 있습니다.(해양문화박물관 소개)⁹⁾

매우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태평양 지역 섬 주민들의 일상적인 어로 활동, 그들이 사용한 카누, 어로 도구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례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전시를 2003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관람하면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단지 태평양 지역 섬 주민

8) <http://oki-park.jp/kaiyo/ko/event/index.html>

9) <http://oki-park.jp/kaiyo/ko/info/index.html>

들의 원시적인 어로 활동과 각종 카누와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데서 그쳤다. 왜 그런 느낌 밖에 받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오키나와 해양문화관의 전시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주민들의 어로 활동과 토착 종교 등 실제 오늘날의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민속 지식에만 주목할 뿐,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치권력 지배세력의 교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포섭당한 측면 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전시 어디에서도 마이크로네시아 섬 지역 주민들이 제국의 계속적인 교체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 지배하고, 그 섬들을 무대로 미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현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실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오래 동안 제국 세력의 지배를 받고 시달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 왔으며, 아직도 여전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신기한 남방의 문화를 보여주는 존재로만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5. 맺는말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던 제2차 세계 대전, 좁게 보면 태평양 전쟁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전쟁사라는 영역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다. 사실 한국을 둘러싼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지역을 무대로 벌인 전쟁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 양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국 일본이 미군과 맞서 싸웠던 태평양 전쟁의 전 과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미국과 맞서 싸웠던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왜 그 전쟁이 벌어졌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던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확보는 과연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는 일본의 지배 영역이었던 남양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과 한국 모두 당시를 경험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남양군도를 전쟁터이자 군인 또는 강제 동원된 노동자와 위안부의 아픈 기억이 대부분이고, 젊은이들은 한편으로는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나오는 특집방송에서 듣던 남양군도와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열대의 섬, 신혼여행의 최적지로 알려진 리조트가 떠오르는 곳이다. 그밖에는 사실상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생각, 그들의 정치 지배형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거나 천박한 수준의 지식 밖에는 없는 셈이다. 어쩌면 지구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시대에 우리들이 미크로네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수준과 이해의 정도는 과거 남양군도 시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남양군도에 대한 이미지를 벗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국 일본이 남양군도를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조선 땅에는 줄곧 남양군도에 관한 소식이 전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병사로, 위안부로 남양군도로 갔다는 점이다. 때로는 모집에 응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발적으로 찾아간 경우도 있고, 전쟁 말기 강제로 끌려가 전투가 벌어지던 현장에 묶여 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인에게 남양군도, 즉 미크로네시아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고, 다른 면에

서 보면, 강제 동원의 괴롭고 힘들었던 역사가 남아 있는 고통의 땅이기도 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 작업을 진행할 때, 비로소 20세기 태평양 지역 섬들의 역사를 일본인과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와 위안부의 역사를 포괄하면서, 현지 주민 중심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권명아(2005), 『태평양 전쟁기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상허학보』14집, 상허학회.
- 권희영 외(1995), 『해외 희생자 유해현황 조사사업 보고서, 1995년도: 일제시기 해외 한인 희생자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도형(2006), 『중부 태평양 팔라우 군도 한인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명환(2008), 『1943~1944년 팔라우(Palau)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14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김명환(2009),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 실태(1914~1938)』, 『한일민족문제연구』16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남경희(2006), 『1930~40년대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지역 한인의 이주와 강제 연행』, 國民大學校 大學院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도미야마 이치로(2002), 『전장의 기억』, 임성모 옮김, 도서출판 이산.
- 도미야마 이치로(2009), 『폭력의 예감』, 도서출판 그린비.
- 박종기(2004), 『연구의 공백지대,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역사와현실』51호, 한국역사연구회.
- 張錫興(2003),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2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정혜경(2006),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남양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4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鄭惠瓊(2002), 『公文書의 微視的 構造 認識으로 본 南洋農業移民(1939-1940)』, 『한일민족문제연구』3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鄭惠瓊(2004), 『해방이후 강제연행 생존자의 사회적응과정』, 『한국 근현대사 연구』 2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정혜경(2005), 『일제 말기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44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정혜경(2006),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남양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4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조성운(2010), 「남양군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 『해양과 문화』vol. 22, 봄호, 해양문화재단.

주강현(2008), 『적도의 침묵』, 김영사.

Hezel, Francis X.(2001), *The New Shape of Old Island Cultures: A Half Century of Social Change in Micronesia*, Univ of Hawaii Press.

Keating, Elizabeth Lillian(1998), *Power Sharing: Language, Rank, Gender, and Social Space in Pohnpei, Micronesia*, Oxford Univ Press.

Levesque, Rodrigue(1994), *History of Micronesia: A Collection of Source Documents : Prelude to Conquest, 1561-1595*, Univ of Hawaii Press.

Levesque, Rodrigue(1995), *History of Micronesia: A Collection of Source Documents : Religious Conquest, 1638-1670*, Univ of Hawaii Press.

Levesque, Rodrigue(1997), *History of Micronesia: A Collection of Source Documents : More Turmoil in the Marianas, 1679-1683*, Univ of Hawaii Press.

Mark R. Peattie(1988), *Nan'yō : the rise and fall of the Japanese in Micronesia, 1885-1945* /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家永三郎(1968), 『太平洋戦争』, 岩波書店.

溝口敏行(1980), 「日本統治下における「南洋群島」の経済発展—1922-38年」, 『経済研究』31-2, 一橋大学経済研究所.

今泉裕美子(1992), 「日本軍による支配の実態と民衆の抵抗: ミクロネシア」, 『歴史評論』通巻 508, 8月號.

今泉裕美子(1992), 「南洋興発(株)の沖縄県人政策に関する覚書 : 導入初期の方針を中心として」, 『沖縄文化研究』19, 法政大学 沖縄文化研究所.

今泉裕美子(1993), 「南洋群島委任統治政策の形成」,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4 統合と支配の論理』岩波書店.

今泉裕美子(1994), 「国際連盟での審査にみる南洋群島現地住民政策」, 『歴史学研究』665号, 1994-11.

- 今泉裕美子(1996), 『南洋庁の公学校教育方針と教育の実態：一九三〇年代初頭を中心に』, 『沖繩文化研究』 22, 法政大学 沖繩文化研究所.
- 今泉裕美子(2004), 『南洋群島經濟の戦時化と南洋興発株式会社』, 『戦時下アジアの日本經濟團體』, 日本經濟評論社.
- 今泉裕美子(2005), 『南洋群島引揚げ者の団体形成とその活動--日本の敗戦直後を中心として』, 『史料編集室紀要』 30, 沖繩県教育委員会.
- 今泉裕美子(2009), 『南洋群島への朝鮮人の戦時労働動員--南洋群島經濟の戦時化からみる一側面』, 『戦争責任研究』 64号, 夏季,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大江志乃夫(1992),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第1巻 植民地帝国日本』, 東京, 岩波書店.
- ピーティアー, マーク・R(1992), 『日本植民地支配下のマイクロネシア』, 大江志乃夫外(編),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1—植民地帝国日本』 東京:岩波書店.
- 西村誠(2007), 『太平洋戦跡紀行 サイパン グラム テニアン』, 光人社.
- 石川友紀(2004), 『旧南洋群島における沖繩県出身移民に関する歴史地理学的研究』, 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成果 報告書.
- 安里嗣淳(2002), 『旧南洋群島テニアン島移民の聞き取り記録--沖繩本島越来村出身 安里ウトの場合』, 『史料編集室紀要』27号, 沖繩県文化振興会 編/沖繩県教育委員会.
- 安部惇(1985), 『日本の南進と軍政下の植民政策—南洋群島の領有と植民政策1』, 『愛媛經濟論集』5-1.
- 日本民主同志会 編(1973), 『孤島の英靈: 中部太平洋諸島 第1次特別慰靈・遺骨收拾調査 派遣団記録』, 恒友出版.
- 佐伯安子(1992), 『海軍の南進と南洋興発(1920年~1936年)--南洋群島委任統治から』, 『法學研究』 65(2),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慶應義塾大学.
- 清水昭俊(1993), 『近代と国家と伝統』, 『近代に生きる』 東京大学出版会.
- 出岡学(2003), 『南洋群島統治と宗教—1914~22年の海軍統治期を中心にして』, 『史學雜誌』第112編 第4号.
- 坂野徹(2005), 『帝国日本と人類学者』頸草書房.
- 河野仁(2001), 『“玉碎”の軍隊、“生還”の軍隊—日米兵士が見た太平洋戦争』, 講談社.

Abstract

Empire Japan's Dominance of the Nanyo Islanders
and its Research Trend

Cho, Sung-Youn*

This paper aims to preliminary work in order to study the history and activities of the Nanyo Islanders, i.e. Micronesia under the Japanese Rule. Japan dominate Micronesia instead of the Deutsch Rule from 1914 to 1945. The Nanyo Islanders was the military base for the Japanese Navy for expanding and invading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Since the war broke out, the Japanese and the Americans are determined to fight a number of local residents and the Okinawan, and Korean people were killed or wounded.

Previous stud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policies and the war in Micronesia under the Emperor Japan. But Results of the War, ie, victims of the Okinawan, Korean and the local residents were neglected.

We need to have the new perspective of the local residents. And we need to study comprehensive history of Korean comfort women, workers as a part of Korean History. We need to consider two points to enhanced the level of the Pacific Studies.

*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acific, Nanyo Gunndo, South See Islanderd, Micronesia, Japan

교신 : 조성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E-mail : chomin@jejunu.ac.kr 전화 : 064-754-2786)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25.

게재확정일 2010. 08. 10.